대통합신당 지분 챙기기 '이전투구'

시민사회 "창준위 조직 1:1 원칙 지켜야"

정치권 "孫 기득권 버린다는 약속 지켜야"

범여권 대통합 신당이 출범도 하기 전에 지분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사회 세력과 정치권이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 대선주자 진영에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당내 세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신당은 통합 이전에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 진영은 지난달 30일 긴급 중앙위원회의를 개최, 창준위 실무조직 구성과 관련, 정치권과 1 : 1의 비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진영은 이튿날 저녁 중앙위원회의를 다시 열고 1 : 1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신당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신당은 출범 이전에 상당한 내부 진통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존 정치권은 시민사회 세력이 현실 정치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우리당과 통합민주당 탈당파,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 선진평화연대 관계자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으나 시민사회진영을 성토했다.

이와 함께 손학규 전 경기지사 지지세력인 선진평화연대(선평련)가 신당 중앙위원과 실무 당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시·도당 창당과정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대선주자 진영에서는 '손학규 신당'을 만드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모 대선주자 진영에 참여하고 있는 현역 의원은 "선평련이 겉으로는 공동 창준위원장을 안맡는 등 기득권을 버리는 척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분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선주자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당이 창당되면 결국 손학규 당이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으며 여성 대선 주자 측근도 "손 전 지사는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당초 약속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당 측은 내달 3일 중앙위원회의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원내대표로는 김효석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사무총장에는 이낙연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통합완성 국민원탁회의에서 김효석 의원(왼쪽부터), 김영진 전 의원,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장상 전 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의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채일병 의원이 '대통합완성' 글자판을 들어올리며 대통합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 대선후보 '경선 룰' 윤곽

선거인단 모집 지역별 가중치 반영 안해

1인1표제 전자투표…내달 15일부터 순회

범여권 대선주자를 뽑을 '경선 룰'이 진통 끝에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으나 세부 쟁점별로 주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는 지난달 31일 그동안 진행해온 각 진영 대리인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2차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경선에서는 190만명의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 이 가운데 3만5천명 가량(반영비율 약 50%)을 무작위 추출했던 2002년 때와 달리 선거인단으로 신청하기만 하면 전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참여를 위해 모바일, 문서, 전화,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기로 했으며 실명인증시스템도 도입된다.

또한 지역별 순회경선 일정에 맞춰 선거인단을 단계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순차모집 방식이 성사될 경우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성별, 연령대, 계층별 가중치도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방식은 1인1표제 전자투표로 결정됐으며 과반수 여부와 상관없이 최다득표자가 후보로 확정된다.

국경추는 대통합신당 창당일인 5일부터 선거인단 모집 작업에 착수, '컷오프'(예비경선)를 통해 5~8명의 후보를 추린 뒤 9월15일부터 약 한달간의 본선 일정을 거쳐 10월 중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본경선 전에 5대 광역시에서 5회 이상 정책토론회도 실시키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의원 13명 대통합 논의 제동

중도통합민주당 소속의 광주시의원 13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범여권 완전 대통합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조건 없는 대통합을 주문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도 사실상 '민주당 파괴 세력'으로 규정, 논란이 예상된다.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광주시의원 13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을 탈당하는 행위는 중도 개혁정당을 지지해준 7만 당원을 등지는 처사로 개혁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탈당 부추기지 마라"

DJ까지 파괴 세력 간주

요청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민주당 당원들의 탈당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 직후 강 의장은 '민주당 파괴 세력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광태 광주시장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시장을 포함한다"면서도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분이 민주당 중심의 통합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 뜻과 같을 것이다"고 답을 피해 나갔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선 김 전 대통령이 이미 조건없는 대통합을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을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일자리 창출 공감 군 가산점제 이견

대선주자 7명 여성정책 세미나

박근혜, 손학규, 심상정, 이명박, 정동영, 추미애, 한명숙 등 대선 주자 7명의 여성정책을 검증하는 세미나 '여성이 묻는다, 준비되셨습니까?'가 31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와 여성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7명의 대선 후보들에게 여성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분석한 발제와 주요 여성단체장들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박명순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여성정책과 공약 분석'이라는 발제문에서 "7명의 후보 모두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보육 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후보들은 여성정책 중 군가산점 부활과 여성가족부의 통폐합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군가산점 부활과 관련, 박근혜, 손학규, 한명숙, 심상정 후보가 반대를 표명했고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추미애 후보는 조건부 찬성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시대정신과 양성평등 철학'이라는 발제문에서 "대선 후보들의 출마변의 핵심은 리더십과 경제살리기"라면서 "손학규, 심상정, 추미애 등 세 후보는 경제문제를, 이명박, 박근혜, 한명숙, 정동영 등 네 후보는 정치와 리더십을 핵심 출마의 변으로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연합뉴스

범여주자 협공에 "소나기 피하기"

■ 孫, 또 지방투어 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또 다시 지방투어에 올랐다. 지난 22일 '2차 민심대장정'을 끝내고 여의도 복귀를 선언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지방투어 주제는 '농심(農心) 잡기'다. 손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전북 정읍시 고창군 아산면 봉덕마을 앞 3천㎡ 밭에서 동네 아낙네들과 고추를 함께 수확하면서 "농민과 시골, 농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하며 살고 있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5~6곳의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해 농민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농업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는 2차 민심대장정을 끝낸 후 "대통합의 전면에 나서겠다"며 중앙정치의 현실에 뛰어들 것임을 천명했다는 점에 비춰 갑작스런 지방행이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손 전 지사측은 "통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부분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범여 주자들이 경선 초입국면에서 손 전 지사를 집중견제하는 기류가 강해지자 손 전 지사가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바꾼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손 전 지사의 지방행에는 국민의 어려움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 여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후식기자 who@ /연합뉴스

www.ori27.com
봉선직영점 오픈성업중
정성을 다하는 二十七年 오리요리 27년 전문점

전복한방오리백숙

오리불고기

오리훈제찜

약밥
첨단본점 (062)973-5279 롯데마트 주차장 건너편
상무직영점 (062)372-5279 신천 힐탑아파트 앞
봉선직영점 (062)674-5279 남구청앞 솔뫼렉스 1F 뒷편

남구청앞 솔뫼렉스 1F 뒷편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공인중개사 1,2차(월~토) 시험일 : 10월28일
▶주택관리사 1,2차(월~토) 시험일 : 10월21일
▶주택관리사 2차(회계포함) 주말반(토,일) 시험일 : 10월21일
◉모집대상
▶훈련도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40세 이상이신 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기타사항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수료후 100~80% 환급
◉접 수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컴퓨터과정-
◉모집과정
▶정보화기초1과정 윈도우XP, 인터넷활용, 한글문서편집 활용, 유틸리티활용
▶정보화기초2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
◉기타사항
▶수료후 100% 환급
◉접 수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수업시간
▶월,수,금 19 : 00~21 : 00(기초2) ▶화,목 19 : 00~21 : 00(기초1)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 特報 : 세무公務員 3000명 모집, 합격의 절호의 기회!! =
7·9급 공무원 大특강
9급세무직 2700명 공채 ◉1차:9월16일 시행(1200명 모집) ◉2차:내년초(1500명 모집 예상) (사상초유 大모집)
全南 ■7·9급 일반 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시험 ■9급 교육 행정직 000명 올하반기 시행
개강 8月1日 주·야반 모집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

www.kimyoung.co.kr
그동안 김영출신 12만여명 합격
앞선 시작, 앞서가는 힘! 상위권 대학도 역시"
김영선생 대학편입
여름방학 편입대특강
개강 ▶8월 1일
올해도 역시! 거침없는 합격률!!
역시! 김영! 중앙대 102명 중 67명, 한양대 185명중 137명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뒤) ☎227-8088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지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방학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 육 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앞 제일B/D 3층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신기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원, 태권도도장, 각·여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야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제1회
인증기관 : 경찰청 10월 14일 시험확정
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사고 감정전문가! 취업·개업 할 수 있다!
"제1회 시험을 노려라"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탄생목적
• 선진교통사고 조사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 교통사고 조사의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으로 사고조사의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 및 자격의 신뢰성 확보
• 교통사고 당사가 간의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사고 감정전문가 배출이 목적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주요 진출분야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헌병 등 공무집행기관,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사설감정사 일반교통관련 기업체, 교통용역업체, 운수회사, 보험회사 등 최소 필요 인원 8,000~20,000명 이상 필요함.
회원 합격을 위한 무료특강 (강사:강준성 현직 대학교수 공학박사)
• 월·수반 : 오후 7~9시(본원 강의장)
• 화·목반 : 오후 7~9시(본원 강의장)
• 토 요 반 : 오후 2~5시(본원 강의장)
★무료공개 세미나 (시험출제 경향분석서 무료 배부(전화 접수))★
●1회 시험은 이렇게 준비하면 합격한다
출제기준에 맞춘 수험서 + 핵심 강의 + 동영상 강좌 + 적중 블랙박스 문제풀이 = 합격
■시험과목 : 1차 - 교통사고조사론, 교통사고 재현론, 교통관련 법규, 차량운동학
2차 - 교통사고 조사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합격기준 :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평균 60점 합격
■자격증 인증기관 : 경찰청
■시험주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위 치 : 롯데백화점 정문 건너편 북동성당 후문 옆 제일빌딩 3층
시험안내 접수 062)528-7788
- 경찰고시연구회 부설 -
교통사고 감정교육원